

광주폴리

맛과 멋 담는다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3차 광주폴리 주제가 확정되면서 설치 장소, 작가 선정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10월 개최된 광주폴리시민협의회에서 천의영 광주폴리 총감독이 제안한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3차 광주폴리 주제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천의영 총감독을 도울 큐레이터로 유우상 전남대학교 건축과 교수, 위진복 UIA건축소장(영국왕립건축사)이 선정됐다.

주제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은 국립아



광주시 동구 장동사거리에 설치된 후안 에레스 작 '소통의 오두막'

3차 주제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 확정 ... 내년 하반기 선보여 양림동 등 후보지 20곳 중 5개 내 설치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도시 브랜딩과 도심 재생을 접목해 광주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맛'과 '멋'이라는 일상적인 요소를 광주폴리로 끌어들이 광주라는 도시를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즉 방문객들이 광주폴리를 통해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주제가 확정됨에 따라 장소 및 참여작가도 내년 1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지역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한 폴리 후보지 중 장소선정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설치 장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민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장소를 비롯해 시·구 및 유관기관, 지역 대학, 시민 등이 제시한 공간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3차 폴리는 5개 이내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양림동 역사마을, 첨단2지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월산동 달미마을, 양동시장 주변 등 약 20여군데다. 재단은 구 도심 활성화를 큰 틀로 놓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작 장소와 개수는 줄이고 파급력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참여작가가 선정되면 시의회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도 수시로 개최하면서 열린 형식으로 3차 광주폴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3차 광주폴리 대국민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광주폴리 홈페이지(www.gwangjuolly.org)에서 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오는 31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PDF 파일로 위치도 및 주변 현황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최우수상(1인)은 상장과 함께 700만원, 우수상(2인) 150만원을 수여하며 입선 5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최우수상에 뽑힌 아이디어는 폴리 1개 작품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내년 1월15일에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모에 대한 질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1회에 한해 접수 받으며 질의와 응답 내용은 공모자 전원에게 고지된다.

천의영 광주폴리 총감독은 "3차 광주폴리는 광주의 미래를 담는 새로운 형식의 '도시 활성화 장치'가 돼야 하며 시민사회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된 광주외의 정체성을 담은 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광주만의 관광명소로서 아이코닉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폴리는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11개, 2차는 '인권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8개가 광주 도시에 설치돼있다.

문의 062-608-426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대입 6수생인 정봉이는 공부만 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24살 청년이다. 오래전부터 틈틈이 모으고 있는 우표들과 LP판들은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그것도 부족해 얼마 전부터는 임시생들의 필독서인 '성문영어' 보다 전화번호부를 들여다 보는 별난 취미까지 생겼다. 게다가 늦은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MBC 라디오 FM의 인기 프로그램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보낼 예쁜 엽서를 만든다. 운 좋게도 자신이 보낸 엽서가 방송을 타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른다. 최근 방 송가에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고 있

최고성적인 '응답하라 1994'(지난 해 방영)의 11.9%를 뛰어넘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친근한 캐릭터 때문이다. 독서실 만 가쁜 프리임 영어사전을 번 채 잡지는 덕선이는 아랫집에 살던 아이였고 공부 잘하지만 '이기적 부류'에 속하는 별난 취미까지 생겼다. 게다가 늦은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MBC 라디오 FM의 인기 프로그램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보낼 예쁜 엽서를 만든다. 운 좋게도 자신이 보낸 엽서가 방송을 타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른다. 최근 방 송가에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고 있

할링과 감성을 '저격'한 드라마 속의 음악들도 빼놓을 수 없는 흥행요인이다. 음원 사이트 멜론에는 밴드 혁오가 부른 이문세의 '소녀'가 1위, 이적이 부른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4위, 김필이 부른 산울림의 '정춘' 등이 톱 10에

백투더 1988

(back to the)

는 tvN 주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의 이야기다.

지난달 중순 방영된 '첫눈이 온 다구요'편에 소개된 이 에피소드를 본 순간 불현듯 30여 년 전의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정봉이처럼 창의적인 글과 그림이 담긴 엽서를 발송국에 보낸 적은 없지만 당시 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MBC 라디오 예쁜 엽서전'에 출품된 기발한 '작품'들을 보고 단짝친구와 함께 감탄했던 일이 생각났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으로 시작되는 드라마 OST '정춘'은 또 어찌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지. 잊고 있었던 애뜻한 추억들을 하나씩 '강제 소환'하는 '응답하라...' 덕분에 요즘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런데 최근 기자만 '추억팔이'에 빠진 게 아닌가 보다. 지난 28일 방송된 '응답하라 1988'(8화)가 평균 시청률 12.2%를 기록하며 역대

올랐다. 19살인 둘째 아들 녀석이 요즘 즐겨 듣는 노래들도 이들 OST다.

'응답하라...'가 통할 수 있는 건 그 시절 풍성한 문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가요제를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고(故)신해철과 이선희, 노래를 찾는 사람들, 김완선,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등 80~90년대는 발라드, 댄스, 민중가요, 힙합, 레게, 록 등 다양한 음악이 등장한 문화융성의 시대였다. 이 시기의 노래들을 소재로 한 '무한도전 토토가', '슈가송' 등 예능프로그램을 모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 하게도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야 살아남을 만큼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빈약하다. 아무런 유행이 돌고 돈다지만 문화발전을 위해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도 필요하다. 문득 먼 훗날 '응답하라 2015'를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궁금하다. <편집부국장·문화산업기자>

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개관전·학술 프로그램 진행

19일까지 극장3·대강의실

도서관과 박물관, 아카이브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Library Park)'에서 공식개관 기념전과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공간은 문화전당 정보원의 핵심 시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오는 19일까지 아시아 문화·예술의 차별성을 조명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학술프로그램

은 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과 대강의실 등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아시아의 전시, 대중음악, 디자인, 퍼포먼스 아트, 공연예술' 등 총 5개의 학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중국·일본·태국·대만 등 각국 큐레이터, 작가, 교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문화예술 공동체로서 교감하는 자리다.

'아시아의 대중음악' 국제심포지엄은 4일 열리며 신현준(성공회대 교수), 모리 요시타카(동경예술대 교수) 등 아시아 8개국

대중음악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주요 사건과 인물, 작품 등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시아 각국의 대중음악 발전 과정을 조망한다.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트' 특별 강연(5일)은 196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전위예술그룹인 '하이레드센터(Hi-Red Center)'의 이즈미 타츠(Izumi Tatsu)와 그룹 '제로지겐(Zero Jigen)'의 리더 가토 요시히로(Kato Yoshihiro)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로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한국의 '1세대 북 디자이너'인 정병규의 북 디



신현준 교수

자인 세계를 대중들과 공유하는 '아시아의 디자인'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현대미술기관과 창조적 실천에서의 아카이브 열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아시아의 전시'는 오는 11일 열린다. 이 행사 심포지엄에서는 김선정(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켄지 카자야(교토예술대학교 교수), 마미 카타오카(모리미술관 큐레이터) 등 총 14명의 큐레이터와 교수, 미술관장 등이 참여한다. 문의 1899-556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주제 선정을 위한 오픈 포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6 광주비엔날레 주제 선정을 위한 오픈 포럼'을 3일 오후 2시 서울 홍익대학교 홍문관 기림홀에서 연다.

이번 포럼은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이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고운 시인이 '예술이 가는 길', 김우창 문학평론가가 '예술과 화평의 이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된다. 김영호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송호근 서울대 교수, 이기중 전남대 교수, 배르너 사세 한국학 교수, 아네 요르트 구투 작가 등이 참여한다.

비엔날레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062-608-433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률경매 (추천 특급) (8층 상가건물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연구시설)
(첨단지구 삼성전자 정문 앞)
(토 500평, 건 904평)

1층 (상가) - 130평
2층~7층 (오피스텔 룸 56개)
(15평, 고급형오피스텔)
8층 (사무실, 주택)

(매가 → 35억)
임대예상 수익 → 보 3억, 월 3,000만
분할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실투자금 제로)
(향후 60억 가치 있음)

감정가 35억4천 → 최저가 24억8천

010-6834-4800 / 010-6832-9700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 (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 월32만) → 매가 3천8백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5백만
-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칸) 2층~3층 (원룸6개, 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 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 월1,020만) → 매가 17억

010-7384-7800

상가 임대 (상무지구)

- 상무지구 (5층) / 90평**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올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주차 2대 무료 / 학원, 보험사, 사무실, 기타

보증금 2,000만 / 월 130만

- 법원앞 (1층) 사무실 임대 / 22평**
(즉시입주가능, 울리모델링 완비)
버스, 택시승강장 앞 (위치 최고)

보증금 2,000만 / 월 80만

010-6670-9800